

‘말하는 돌’과 ‘돌의 세계’ 및 고인돌에 새겨진 성좌

윤병렬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철학 전공

heliospan@hanmail.net

- I. 머리말
- II. 우리에게 친숙한 ‘돌의 세계’와 ‘말하는 돌’
- III. 롬바흐의 ‘돌의 세계’와 ‘말하는 돌’
- IV. ‘말하는 돌’과 하이데거의 현상학 개념
- V. ‘말하는 돌’로서의 성혈고인돌에 새겨진 성좌
- VI. 맺음말

“사람들은 결코 ‘미개’했던 적이 없었다.”

(Heinrich Rombach)¹⁾

I. 머리말

‘말하는 돌’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문명과 실증주의에 습관화된 현대인에게 얼마나 어색한 표현일까. 그야말로 무생물 중의 무생물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정상적인 표현이 아닐까. 돌이 말한다는 표현은 그야말로 얼토당토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돌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건 ‘말하는 돌’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고인들의 묘개들에 새겨진 흙이 별자리를 나타낸다면, 말과 글로 전송되지 않았어도 이러한 성혈고인들은 천문도를 드러내는, 말하자면 말하는 돌과 다름없는 것이다.

돌이나 바위는 우리에게 꽤 친숙한 말이다. 사람의 이름에 ‘돌’이나 ‘석(石)’이 등장하는가 하면, 시(詩)나 책의 제목으로도 수없이 등장하고, 정원이나 공원에 미적인 장식을 위해서도 또 건축의 재료로도 돌은 확실한 존재위상을 갖는다. 돌에 과연 세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논쟁 대상이지만, 자연과학과 실증주의로 습관화된 현대인의 시각에서 돌은 그저 죽어 있는 무생물일 따름이다.

그러나 돌이 우리에게서 확실한 존재위상을 갖는 이상, 우리는 결코 돌을 죽어 있는 무생물로 처단할 수는 없다. 인류문명이 구석기와 신석기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돌은 인류문명의 시원을 함께한 것이다.

해석학자 롬바흐(H. Rombach)는—우리가 아래에서 보게 되겠지만—‘말하는 돌’의 의미를 결코 어색하거나 무리하지 않게, 훌륭하게 밝혀낸다. 그러나 굳이 롬바흐의 해석이 아니어도, 돌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말하는 돌’이 어색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놀랍게도 고인돌사랑회의 인터넷사이트²⁾에 들어가면 ‘말하는 돌’이란 항목이 있다. 고인돌이 품고 있는 의미나 메시지가 분명 존재하기에 이런 명칭이 부여된 것이다.

동양의 사상에도 심취한 롬바흐는 무생물로 처단된 ‘돌’에 그야말로 혼을 불어넣어 ‘돌의 세계’를 재발견하고, 돌로부터 ‘절대자(das Absolute)’의

1) H. Rombach, *Leben des Geistes*(Herder: Freiburg · Basel · Wien 1977), p. 65: “‘Primitiv’ sind die Menschen nie gewesen.”

2) www.igoindol.net

개념과 ‘초-자연(Über-Natur)’으로서의 원초적 ‘형이상학(Metaphysik)’을 읽어낸다. 그런데 이러한 돌이 성혈고인들의 덮개돌을 통해 각별한 별자리와 천문도를 밝히고 있기에, ‘말하는 돌’의 의미가 스스로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인돌을 세운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일월남북두(日月南北斗)와 같은 각별한 별자리를 통해 온 코스모스를 수호하고 보살피는 철학의 체계를 세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경탄으로 다가오고, 롬바흐의 명제인 “인류는 결코 ‘미개’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큰 사건이 되는 것이다.

II. 우리에게 친숙한 ‘돌의 세계’와 ‘말하는 돌’

그런데 한국인에게 돌(石)이나 바위라는 말은 고래로부터 펍 친숙하여 사람들의 이름글자로도 사용되고 있다. ‘돌쇠’라는 말은 옛날에는 아주 예사롭고도 친숙한 이름으로 불렸다. ‘돌’이나 ‘바위’가 들어간 시(詩)와 책이 무척 많았다는 것은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서구적 시각에서는 돌이 단지 무생물로 처단되지만, 동양에서의 돌은 나름대로 우주적 중량을 갖는다는 표징이다. 어떤 신문기사의 제목처럼(“우리 조상들은 왜 돌을 벗으로 생각했을까?”)³⁾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랜 선사시대부터 돌을 ‘벗으로’ 가까이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구석기와 신석기의 각종 도구(주먹도끼, 손도끼, 반달돌칼, 각종 석검, 찌르개 등)와 선바위, 선돌, 고인돌, 각종 석탑, 돌장승, 돌하르방, 불상, 비석, 장군석, 돌집승, 돌절구, 다듬잇돌 등 수없이 많다. 이처럼 인류문명이 구석기와 신석기로부터 시작한다고 규명한다면, 돌은 인류문명의 시원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조선시대의 선비이자 문인이었던 고산 윤선도는 〈오우가(五友歌)〉에서 “내 벗이 몇인가 헤아려보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동산에 달이 밝게 떠오르니 그것은 더욱 반갑구나”⁴⁾라고 서시(序

3) 이광표, 「우리 조상들은 왜 돌을 벗으로 생각했을까?」, 《동아일보》, 2016년 1월 20일자. 이광표 기자는 서울 성북구에 ‘우리옛돌박물관’을 소개하고 동시에 우리의 돌 문화재를 소개하고 있다.

詩)에서 시작(詩作)했는데, 여기에 돌이 다섯 벼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 돌을 벼으로 삼은 이유를 고산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꽃은 무슨 까닭으로 피자마자 쉽게 떨어지고/풀은 또 어찌하여 푸른 듯하다가 이내 누렇게 되는가?/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위의 시구(詩句)에서처럼 돌은 변치 않는다. 돌은 어떤 인위적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온갖 비바람을 견디어낸다. 돌의 이 같은 굳센 의지에서 옛 선비들은 돌의 정신을 찬양하고 군자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다. 돌은 윤선도에게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우정을 나누는 벼으로, 변치 않는 인격체로 승화되어 있다.

이러한 고산 윤선도처럼 해석학자 롬바흐도 변하지 않는 돌로부터 돌의 독특한 세계를 발견하고, 이를 철학의 심층세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돌에게서 인간은 불변(das Unveränderliche)을 배운다. 돌은 자신의 불변을 모든 변하는 것을 초월한 위치에 놓는다.”⁵⁾ 그런데 이러한 불변은 뭔가 하나의 새로운 차원, 즉 모든 변하는 것, 모든 생성소멸하는 것을 초월하고 지배하는 차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한 위치에 놓음(Über-Stellen)’은 하나의 철학적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선사시대의 인간은 이러한 철학적 행위를 사상 속에서가 아니라 거석을 세우는 것으로 행한 것이다.”⁶⁾ 말하자면 거석을 세우는 것에는 이 거석을 통한 초자연적인, 초월한 위치에 놓는 인간의 철학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롬바흐에 의하면 이러한 ‘초월한 위치에 놓음’이야말로 원초적 형태의 형이상학 개념인 것이다. “후세에 ‘형이상학(Metaphysik)’이라고 일컫는 것은 ‘초-자연’으로서의 형이상학(Metaphysik)인데, 바로 이 초-자연에서 탄생된 것이다.”⁷⁾ 롬바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고급문화들(Hochkulturen)’이란 다름 아닌 이러한 초월(Über)의 문화라고 역설한다.⁸⁾

4) blog.daum.net/cha9335/7139909 참조.

5) H. Rombach, *Leben des Geistes*(Herder: Freiburg · Basel · Wien, 1977), p. 104.

6) *Ibid.*

7) *Ibid.* ‘형이상학(Metaphysik)’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기원하는데, meta-ta-physika (μετὰ-τα-φυσικά)는 그야말로 초-자연(Über-Natur)에 관한 학인 것이다. 롬바흐의 어원풀이는 정확하다.

8) *Ibid.*

더 나아가 롬바흐는 이러한 초-자연으로서의 형이상학뿐만 아니라 철학적 개념인 “절대자(das Absolute)”도 단호하게 거석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천명한다. 롬바흐에 의하면 선사시대의 거석(고인돌, 선돌 등)은 아직 이러한 돌에 대항할 도구가 없었던 때에—왜냐하면 이런 돌보다 더 단단한 제작재료는 거석이 세워지는 시대에는 없었다—불가항력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배태하고 있었다.

“돌은 ‘대항할 수 없는 것’,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언어로 우리는 이를 절대자(das Absolute)라고 칭할 수 있다. 돌에게서 처음으로 절대자가 알려진 것이다.”⁹⁾ 그러기에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절대자로서의 거석은 오히려 인간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돌에게서 ‘말하는 돌’과 ‘돌의 세계’를 찾아내고 절대자와 초-자연의 형이상학을 읽어낸 롬바흐에게서 우리는 그가 내세운 명제, 즉 “사람들은 결코 ‘미개’했던 적이 없었다”¹⁰⁾를 소름끼치게 체득하게 된다.

돌은 전승된 건축양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주춧돌’이라는 의미의 뉘앙스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원 장식이나 조경에 돌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가! 물론 서양의 조경이나 정원 장식에 쓰이는 돌은 별로 의미가 없다. 여전히 죽어 있는, 세계도 갖지 못하는 무생물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인에게 돌을 뜻하는 석(石)자가 이름글자에 붙여지는 편이고, 과학기술문명이 깊어지는 미래에도 여전히 이 이름은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물존재자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탈레스(Thales)의 “물활론(Hylozoismus)”에 비추어봐도, 혹은 모든 질료는 “……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목적론적 세계관(Teleologische Weltanschauung)”에 반영해봐도, 혹은 세계 내에 있는 아무리 작은 사실도 세계의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이를테면 시냇가의 작은 조약돌이나 깊은 산골에서 살짝 피었다가 지는 야생화조차도—스토아철학의 역설을 참조해봐도, 나아가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nihil est sine causa)”는 라틴어의 속담을 떠올려봐도 돌은 작든 크든 나름대로 우주적 중량과 위상을 갖는 것임에 틀림없다.

9) *Ibid.*, p. 102.

10) *Ibid.*, p. 65.

그런데 인류문명이 돌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기에¹¹⁾, 이러한 돌문명을 단순히 미개와 야만문명의 차원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류가 그것과 더불어 생존해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돌문명은 단순한 주먹도끼나 손도끼에서부터 시작하여 석검, 반달 모양의 돌칼, 찌르개 등등 다양한 형태로 인류의 실생활에 동반되었다. 그런데 구석기 시대의 돌문명은 신석기와 청동기로 이어지면서 대단히 큰 발전을 이룩한다.

신석기시대에서부터 어떤 돌들은 단순한 도구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표명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였다. 선돌이나 고인돌, 특히 천문사상이 각인된 성혈고인돌, 선사시대의 선돌과 선바위(솔즈베리 평원의 스톤헨지, 프랑스 카르나크의 열석들, 제주도의 돌하르방, 이스트섬의 마오이 등)에서부터 돌장승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그런가 하면 이 돌문명은 문자가 새겨져 그 항구성을 자랑까지 하게 되는 것들도 많다. 이를테면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나 구약성서의 십계명, 광개토왕비, 진흥왕의 순수비 등은 그 좋은 보기이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에서는 동물조차도 “연장적 실체(res extensa)”(데카르트)에 불과한데, 돌의 위상은 여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낮을 따름이다. 과학의 지배를 받아온 근대에서는 세계 자체도 연장적 실체에 불과하기에, 고대 그리스가 본 영혼을 가진 유기체의 세계의미도 퇴색되고 말았다. 근대의 ‘세계’는 그야말로 “연장적 실체”일 따름이다. 슈미트(Gerhart Schmidt)가 온당하게 지적하듯 근대의 세계개념은 “영혼이 없고 냉정하며 계산되어지는 것이다. 데카르트(R. Descartes)의 세계(le monde)에서는 ‘모든 것이 연장적인 것(alles Ausgedehnte)’일 따름이다.”¹²⁾

그런데 하이데거(M. Heidegger)가 지적하듯 칸트도 이러한 데카르트의 세계에 대한 사물-존재론을 받아들인 것이다.¹³⁾ 실로 데카르트에게서는 세계든 자연이든, 또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저 모두 “연장적 실체”에 불과하기에, 이들에게서 생명을 가진 고유한 세계를 기대할 수 없다. 어쩌면 이런 근대의 세계개념은 오늘날 과학기술문명의 현대에 더 첨예화 된 것으로 보인다.

11) 구석기와 신석기의 문명에서 돌로 만들어진 각종 도구들을 생각해보라!

12) G. Schmidt, *Platon*(unveröffentlichtes Manuskript), p. 131. 데카르트에게서는 ‘세계’ 자체도 ‘연장적인 것’일 따름이다.

13) M. Heidegger, *Sein und Zeit*(Max Niemeyer: Tübingen 1984), p. 24.

III. 롬바흐의 ‘돌의 세계’와 ‘말하는 돌’

이런 냉정한 근대적·유럽적 세계관에 비취볼 때 돌에 ‘세계’가 붙은 ‘돌의 세계’라는 명칭은 꽤 낯선 용어일 것이다. 도대체 돌에 무슨 세계가 있던 말인가? 인간중심주의의 근대적 세계관에 오리엔테이션된 유럽인에게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그러나 롬바흐는 이런 근대적·유럽적 사유에 강한 억양으로 반대한다. 동물을 형제라 부르고, 식물을 자매로 부르는¹⁴⁾ 그는 이들뿐만 아니라(우리가 무생물이라고 부르는) 돌에게도 생명을 불어넣고 고유한 세계를 인정하여 ‘돌의 세계’를 부각시킨다.¹⁵⁾ 태곳적에 동양인이 가졌던 그런 세계관을 롬바흐가 재발견하여 우리에게 돌려주는 듯하다.

실로 동양의 사유세계에 각별한 애정과 식견을 가진 롬바흐는 위와는 달리 전혀 다른 시각을 드러낸다. 그는 비록 하이데거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돌의 개념에 대해 오히려 대립각을 세운다. 하이데거는 유럽의 뿌리 깊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래서 심지어 후설의 주관주의적인 현상학에게도 등을 돌렸지만, 여전히 인간에 비해 동물과 식물의 세계 및 무생물로 칭해지는 돌을 낮은 단계로 바라보고 있다.

롬바흐가 지적하듯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서는 인간만이 ‘세계’를 갖고 있으며, 동물은 ‘세계 빈곤(weltarm)’ 속에 거처하고 돌에게는 아예 “세계가 없다(weltlos)”.¹⁶⁾ ‘세계’에 대한 물음에서 하이데거는 세 가지의 주도적인 테제로 응답하는데, “돌에게는 세계가 없고, 동물은 세계의 빈곤 속에 존재하며, 인간은 세계를 형성한다.”¹⁷⁾고 한다.

동물과 돌에 대한 하이데거의 이러한 평가에는 여전히 유럽적 사유의 흔적, 즉 인간을 “피조물의 주인(Herr)”으로 여기는 흔적이 남아 있으며, 나아가 세계성과 코스모스에서의 권리 및 존엄성, 의식과 인식, 의지와

14) H. 롬바흐 지음, 전동진 옮김, 『살아있는 구조』(서광사, 2004), 246쪽 참조; 전동진, 「롬바흐의 그림철학」, 『하이데거 연구』 제7집(2002), 35쪽 참조.

15) H. Rombach, *op. cit.*, p. 99.

16) M. Heidegger, *Die Grundbegriffe der Metaphysik*(Klostermann: Frankfurt a.M., 1983), §42, p. 261; H. 롬바흐 지음, 전동진 옮김, 앞의 책, 245쪽.

17) 이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Der Stein ist weltlos, das Tier ist weltarm, der Mensch ist weltbildend."(M. Heidegger, *Ibid.*, §42, p. 261).

자유를 인간에게만 인정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인간만 사물과 대상을 ‘구성’(칸트에게서 *Konstruktion*, 후설에게서 *Konstitution*)하는 특권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로서의 인간 현존재에 치중된 전기 하이데거의 세계개념에는 이처럼 돌에게는 “세계가 없다”는 선고가 내려져 있다. 세계를 형성하고 세계를 여는(*erschliessen*) 역할은 인간 현존재만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인간의 세계형성이 무슨 특권에 의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현존재는 결코 세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단지 그가 세계성(*Weltlichkeit*)을 “실존론적인 것(*Existenzial*)”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세계성은 하나의 존재론적 개념으로서 세계-내-존재를 구성하는 계기의 구조를 뜻한다.”¹⁸⁾ 이토록 하이데거는 ‘세계’ 자체를 현존재의 구성요소로 규명하고서 세계현상을 개념적으로 정리 작업하는 데에 현존재의 근본구조에 대한 통찰을 요구한다.¹⁹⁾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계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물을 때, 우리는 결코 “현존재 분석론의 주제적 장을 떠날 수 없다”고 한다.²⁰⁾

하이데거에 의하면 “세계적”이라는 말은 용어상 현존재의 존재양식의 하나를 의미하지 결코 세계 ‘안에’(눈앞에) 있는 존재자의 존재양식의 하나를 의미하지 않는다”²¹⁾는 것인데, 여기서 그는 확실히 “연장적 실체”로서의 ‘세계’나 사물-존재론적인 근대적 세계개념을 극복했지만,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 머물러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세계가 없는 것으로(*weltlos*)” 규명된 존재자들은 “서로를 건드릴 수 없으며, 어떤 것도 다른 것 곁에 있을 수 없다”²²⁾는 것이다.

이토록 철저하게 ‘세계’를 인간만 갖고 있다는 선언은 하이데거가 여전히 서구의 근대적 인간중심주의 사유에 놓여 있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인 톰바흐는 이런 스승의 사유를 조심스럽게 비판하고 있다. “인간만 세계를 형성하며, 동물은 세계 빈곤에 처해 있고, 돌에게는 세계가 없다”는 규명에 대해 톰바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18) M. Heidegger, *op. cit.*(1984), §14-18, 69c.

19) *Ibid*, p. 52.

20) *Ibid*, p. 64.

21) *Ibid*, p. 65.

22) *Ibid*, p. 55.

파악은 인간을 언제나 ‘피조물의 주인(Herr)’으로 간주해왔으며, 고유한 삶과 보편성(Universalität), 즉 세계성(Welthaftigkeit)과 고유한 권리 및 고유한 존엄성을 인간에게만 인정해온 유럽 사상의 전통과 대폭적으로 일치한다.”²³⁾

인간과 동물 및 돌에 관련된 하이데거의 세계현상 파악에는 톰바흐도 지적하듯이 인간중심주의가 스며들어 있다. 이 인간중심주의에는 인간이 사물과 자연에 대한 유일한 주인으로, “〈파우스트〉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작은 신’으로”²⁴⁾ 증폭되어 있는 것이다.

톰바흐에 의하면 오늘날 소위 환경보호론자들조차도 이런 인간중심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흙과 돌도, 나아가 자연도 그저 죽어 있는 사물로서, 즉 이것들이 각자의 삶과 고유한 의미와 존엄성을, 말하자면 각자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긴다.²⁵⁾

톰바흐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어머니 대지”라고 불렀던 가이아(Gaia)의 사상을 회상시키고 돌을 유기체적인 대지의 구성요소로 파악하면서, 이 돌에게도 세계와 생명이 있음을 읽어낸다.

“다시 한 번 돌들에게로 되돌아가 보자. 돌들은 환경보호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지(Erde)는 돌들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세계가 아닌가? 그 안에서 돌들은 수십억 년에 걸친 탄생과 수백만 년에 걸쳐 고동친 삶을 가졌고 또 그 축제를 벌이지 않았던가? 그리고 지상에서의(auf der Erde) 모든 삶은 처음부터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돌의 삶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 삶의 일대기에서 아주 특정한 나중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해졌던 것이 아닌가? 지상에서의 삶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인가? 구름에서? 태양에서? 무(無)에서? 그것은 돌로 성숙한 지구 위에서야 비로소 등장할 수 있는 원소들의 배합이 아닌가?”²⁶⁾

그리하여 톰바흐에 의하면 인간에게든 동식물에게든 그리고 돌에게든 “이 모든 세계는 **살아 있으며** 이로부터 자신의 고유권리와 고유 존엄성을, 아니 자신의 신성함과 불가침성을 갖는다. 개개의 돌을 이용할 수는

23) H. 톰바흐 지음, 전동진 옮김, 앞의 책, 245쪽.

24) 위의 책, 246쪽.

25) 위의 책, 246쪽 참조.

26) 위의 책, 248쪽.

있다. 하지만 숭고한 돌의 세계 전체를 그러서는 안 된다. 개개의 식물을 이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식물적 삶의 세계 전체를 그러서는 안 된다.”²⁷⁾

롬바흐는 슈바이처(A.Schweitzer)의 “모든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넘어서 모든 존재에 대한 외경심을 요구한다. “우주가 전대미문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생태학적 사유가 우리의 삶이 만물의 삶 속에 편입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전체에게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만 우리의 삶에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반쪽 진리에 불과하다.”²⁸⁾

우리가 보았듯 롬바흐에게 돌은 결코 ‘죽은’ 무생물이 아니라 코스모스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존재자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그의 ‘그림철학’으로 잘 알려진 『정신의 삶』에서 ‘말하는 돌’에 관해 역사적 실례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면밀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시 형식으로 쓴 그의 〈돌〉을 인용해보기로 하자.²⁹⁾

돌

인간에게서 돌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사물이다.
그러기에 그는 돌을
‘죽은’ 돌이라고 명명한다.

그렇지만 돌은 달변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무거운 중량과 과묵함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의미심장한 것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쓰임새가 있다: 표지석(Mahnmal), 기념비, 신성한 성전.

돌은 특별한 역사의 세기에서
이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 역사의 세기는 몇천 년이나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이른바 고금문화를 마련하였고,
그 역사의 세기는 돌과 사자(死者)에게 헌정되었다.

27) 위의 책, 249쪽.

28) 위의 책, 250쪽.

29) H. Rombach, *op. cit.*, p. 99.

그러기에 돌은 인간에게 한 스승이었다.
거인총(巨人塚)의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로
인간은 스스로 높이 올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문자와
기록된 역사 이전에 일어났기에,
인류는 또다시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다.
그들에 대해,
어떻게 그들이 높은 위치에 올랐는지,
어떻게 식물과 동물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이젠 아무도 짐작을 못하고 있다.

위 시의 첫째 연은 그야말로 돌에 대한 아무런 생명을 못 느끼는,
'죽은'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질타하고 있다. 돌에 대한
유렵적·근대적 세계관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둘째 연은 곧바로
이런 세계관에 대해 반격을 가하고 있다. 돌은 그야말로 '말하는 돌'로서
자신의 무거운 중량과 과묵함으로, 즉 일종의 "침묵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돌은 의미심장한 것을 드러내려 할 때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말하는 돌'로서 이를테면 '표지석'이나 경계석 및 기념비나 신성한
성전은 그 사례가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러한 사례들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문자가 발견된 시기에도 여전히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돌에 새긴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를테면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나
구약성서의 십계명, 광개토왕비, 진흥왕의 순수비 등등 수없이
많다.

셋째 연은 이런 '말하는 돌'의 역사와 고급문화가 몇천 년이나 지속되었
다는 것은 곧 "태양거석문화(Megalithkultur)"를 말한다. 그런데 이 '말하
는 돌'은 넷째 연에서 인간들의 한 스승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통해
인류가 높은 위치에 다가가고 고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섯째
연은 안타깝게도 인류는 이 "태양거석문화"가 문자가 발견되기 이전에,
즉 기록된 역사 이전에 일어났기에 이 문화를 망각하고 말았다고 개탄하
고 있다.

실로 문자가 발견되기 이전의 "태양거석문화"에 대해서는—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더라도—정확하게 읽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고인들의 절반 이상이나 몰려 있는 한반도의 고인들이나 영국 솔즈베리 평원에 등글게 늘어선 선돌들, 프랑스 카르나크의 열석들, 태평양 이스트 섬의 모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건립되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나 의미를 인류는 아직(앞으로도 내내)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선사시대의 한국인들이 고인들이나 선돌에 남긴 성좌의 성혈(星穴)이다. 별들이 어떤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이 별들에 가한 일종의 해석인 것이다. 그렇게 북두칠성과 남두육성(남두칠성) 및 태양과 달의 성좌는 사숙도(四宿圖)³⁰⁾로서 온 코스모스를 수호하고 보살피는 각별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해석학자 롬바흐는 고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바위와 함께 동시에 고인돌(Dolmen)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은 후기 시대의 족속들에 의해 선사의 거인족의 무덤장소를 의미하는 ‘거석묘(Hünengrab)’로 칭해졌다. 도대체 고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건립되었단 말인가?³¹⁾ 적당한 도구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들은 왜 이런 초인간적인 일을 했던 것일까?”³²⁾

‘말하는 돌’을 규명한 롬바흐도 고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건립되고, 왜 당대의 사람들이 이토록 초인간적인 일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기에 의문부호를 남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스콧 펙(M. Scott Peck)처럼 고인돌로부터 “거석을 찾아서 내 영혼을 찾아서”³³⁾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문부호를 넘어서, 침묵언어와 암시의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0) 사신도(동 청룡, 남 주작, 북 현무, 서 백호)가 세계를 수호하는 네 방위의 신수(神獸)들인 것처럼 사숙도(해, 달, 남두육성, 북두칠성)는 온 하늘세계를 수호하고 보살피는 별들이다. 이러한 일월남북두(日月南北斗)의 사숙도(四宿圖) 개념 형성에 관해서는 김일권의 『벽화천문도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정체성』(고구려연구회 편, 『고구려 정체성』, 학연문화사, 2004, 1044쪽) 참조. 필자도 김일권 교수가 개념 형성한 이러한 일월남북두의 사숙도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31) 원문은 “Welchem Zwecke dienten die Dolmen wirklich?”로서 “고인들은 진실로 어떤 목적에 기여했단 말인가?”로 번역해도 좋을 듯하다.

32) H. Rombach, *op. cit.*, p. 101.

33) 스콧 펙 지음, 김훈 옮김, 『거석을 찾아서 내 영혼을 찾아서』(고려원미디어, 1996). 여기서 스콧 펙은 풍요와 이성의 시대를 벗어나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에 흩어져 있는 선사시대의 오솔길에서 거석과 마주친다. 웨일스의 한 해변에서 5,000년 전의 고인돌을 발견하고서 그 소박하고 신비로운 거석에 완전히 매혹된다. 그는 거석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신의 현현을 보는 듯 신성을 체험한다. 그에게 거석을 찾는 여행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여행이며, 거석 찬미는 신에 대한 찬미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찬미와 감사로 이어진다.

그러나 성혈고인들은 침묵언어와 암시의 단계를 넘어, 롬바흐의 의문 부호에 응답하는, 말하자면 분명한 메시지로 ‘말하는 돌’인 것이다. 만약 일반적인 고인들을 침묵언어로 말하는 돌이라고 한다면(뭔가 암시를 던져주고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에), 여기에 비해 성혈고인들은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하는 돌’인 것이다.

IV. ‘말하는 돌’과 하이데거의 현상학 개념

‘말하는 돌’이란 돌이 언어나 문자는 아니지만, 그림이나 상징형식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스스로 밝히는 것이기에, 역지로 이론이나 학문적 검증과정을 거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다. 성혈(星穴)고인들과 같은 유물은 그 자체로 실증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대그리스의 어원을 그대로 수용한 하이데거의 ‘현상학’ 개념은—그가 앞에서 돌에게 “세계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는 꼭 역설적으로—‘말하는 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현상학(Phänomenologie)이란 개념은 원래 고대그리스어의 의미에서 ‘파이노메논(φαινόμενον: das Sichzeigende, das Offenbare)’ 혹은 ‘파이네스타이(φαίνεσθαι: sich zeigen)’와 로고스(λόγος)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파이네스타이란 ‘스스로 드러내 보임’이고 파이노메논은 “드러난 그대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³⁴⁾ 따라서 “있는 그대로 드러남”이라고 하는 ‘현상(Phänomen)’은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즉 현상하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또 “현상학”에서의 ‘학’은 Logos(λόγος)가 그 어원이며 동사형은 레게인(λέγειν)인데, 이는 ‘말함’과 ‘밝힘(δηλοῦν)’, “밝게 드러냄(offenbar machen)”, “말함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드러냄”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³⁵⁾

그러기에 “현상학”이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현상을 말하고 밝히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현상학은 어원상 어떤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학문이다.

34) M. Heidegger, *op. cit.*(1984), p.28, p.34.

35) *Ibid*, p.32.

그러기에 하이데거의 현상학의 특징은 은폐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고 밝혀주는 탈은폐적 개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근대로부터 내려오는 인식태도와는 상당히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물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이거나 칸트적인 범주(Kategorie)를 부과하지 않고서,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정신이 사물에 의미를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자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범주라는 틀을 가지고 사물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사태를 지향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자체(die Sachen selbst)가 우리에게 열어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현상학에서는 칸트의 인식론이나 후설의 현상학에서 과다하게 책정된 주체의 권력과 위상이 떨어지고 만다. 그것은 주체의 인위적인 구성이 관건이 아니라 사태 자체의 존재론적 시현(apophansis), 즉 “사태 자체”의 “드러나는 것” 혹은 “드러나야 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게 주체는 결코 어떤 주체중심주의적인 입장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근세에서 구축한 우선권(Primat)을 가진 것도 아니다. 이러한 주체는 세상과 사물을 임의로 혹은 자의적으로 혹은 제멋대로 구성하는 “의미 구성자”가 아니라, 단지 스스로 드러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달하며 또 이렇게 드러난 것을 살마리로 하여 그 숨겨진 의미를 이끌어 내는 해석자일 따름이다.

그러기에 하이데거에게서 진정한 이해의 본질이야말로 사태 자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위적 ‘구성’³⁶⁾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귀결은 팔머(Richard E. Palmer)의 지적대로 “해석학 이론에 대해 너무나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는 해석이 인간의 의식이나 제 범주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사상(事象)³⁷⁾—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드러남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⁸⁾

36) 칸트의 ‘구성(Konstruktion)’이든 후설의 ‘구성(Konstitution)’이든 사태 자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는 하이데거의 현상학과는 차이를 드러낸다.

37) ‘사상’은 우리가 ‘사태’로 번역한 Sache이다. 괄호 안의 한자 事象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보완한 것이다.

38) 리차드 팔머 지음, 이환우 옮김, 『해석학이란 무엇인가』(문예출판사, 2001), 190-191쪽.

V. ‘말하는 돌’로서의 성혈고인들에 새겨진 성좌

필자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한국의 고대철학』을 집필하면서 고분벽화의 많은 충천연색의 천문도와 이 천문도들에 무수히 등장하는 사신도와 사숙도에 감격하면서도 왜 이토록 사신도와 사숙도가 큰 테마로 그려지고 많은 고분에 그려졌는지 의아해했었다. 도대체 이 사신도와 사숙도에 각인된 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첫째, 도대체 그토록 감감한 무덤에 왜 이리도 찬란한 천문도가 그려졌으며, 이 벽화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고분벽화와 천문도는 고구려에서 처음 발달되었는가, 혹은 유입되었는가, 혹은 그 이전의 천문사상에서 계승된 것인가.

셋째, 왜 우리는 이 천문도에 그려진 사신도와 사숙도의 의미를 망각하고 말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 오랜 세월에 걸친 문화단절에 대한 경악스러움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위의 둘째와 셋째의 물음은 이 천문도의 기원을 찾게 하는 동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인다. 고분벽화와 관련된 많은 서적에서는 단순히 천문도의 기원이—마치 자동 응답기처럼—중국에 있다고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단순히 중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고분벽화나 천문도의 기원이 된다는 주장은 너무나 무책임한 소행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김일권 교수는 고구려와 중국의 고분벽화를 검토한 결과 중국의 고분벽화의 경우 장식적인 의미가 강하며, 일월남북두(日月南北斗)의 사숙도 체계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중국이 고구려에 뒤떨어졌다고 진단한다.³⁹⁾

필자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한국의 고대철학』을 출간하기 전후에 강화도의 고인들을 자주 찾아다녔는데, 삼거리고인돌과 창후리고인돌에서는 성혈이 새겨진 고인돌을 볼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강화도의 고인돌을 자주 찾아다녔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군인 전북 고창과 전남 화순의 고인돌을 우선 답사하였다. 이어서 강원도의 양구에 서부터 원주, 영월, 경기도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 경북

39)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 관념 체계 연구」, 『진단학보』 제82호(1996), 1-34쪽
참조: 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사계절, 2008), 30-34쪽 참조.

문경과 안동, 경남 함안과 창원, 전남 여수에 이르기까지 성혈고인들을 답사하여 훌륭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고인들 답사를 통해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별자리와 같은 모습의 성혈(星穴)이 고인들의 덮개들에 새겨져 있음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해와 달을 비롯한 북두칠성, 남두육성, 묘수(플레이아데스성단), 북극삼성, 심수(전갈자리), 삼수(오리온자리), 카시오페이아, 은하수 등등인데, 물론 해독이 어렵고 알 수 없는 성좌도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 해와 달은 각각 하나의 별자리이기에 성혈고인들에서 확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었다. 덮개들에 2개의 큰 성혈이 있다거나, 다른 많은 성혈고인들 중에 각별히 크게 새겨진 성혈일 경우 태양과 달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선사시대에는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이 전부였기에, 해와 달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경남 함안군 도항리 도동(제3호 고인들)에 있는 고인들과 함안박물관 내의 야외 공원에 세워진 성혈고인들에서 다른 성혈에 비해 크게 새겨진 2개의 동심원을 볼 수 있는데, 해와 달로 여겨진다.

많은 성혈고인들의 별자리와 천문도들이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것과 연계하여 박창범 교수는 “고인들 시대의 천문지식과 전통이 삼국시대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⁴⁰⁾고 한다. 박창범 교수는 고인들 시대의 성혈고인들에 각인된 별자리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에 선행(先行)함을 실례로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로는 경남 함안군 예곡리 야촌마을의 고인들을 들고 있다.

이 야촌마을 가정집 마당의 성혈고인들에 새겨져 있는—필자는 2013년 9월에 답사를 통해 확인했다—세 가지 모양의 별자리를 박 교수는 묘수, 남두육성, 심수(삼성)라고 보는데,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묘수·남두육성·삼성 등은 모두 고구려 고분벽화에 빈번히 등장하는 별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별자리들이 새겨져 있는 방위는 하늘에서의 실제 위치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남두육성이 남쪽에 있을 때 심수는 동쪽에, 묘수는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⁴¹⁾라고 밝힌다.

둘째로 제시된 고인들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도동(제3호 고인들)의 암각화 고인들이다. 7-8개의 동심원이 새겨져 있는데⁴²⁾, “동심원은

40) 박창범, 『천문학』(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26쪽.

41) 위의 책, 27쪽.

한국의 선사시대 암각화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문양으로서 태양과 같은 천체로 해석된다. 그런데 도항리 고인돌의 동심원은 특정 별자리와 연관시키기는 힘들나 밝은 별들을 다양한 크기로 구별하여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작은 흠들은 그 사이에 있는 어두운 못별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⁴³⁾⁴⁴⁾

셋째로 제시된 증거는 강원도 양구군 용하리의 선돌이다. 이 선돌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성혈들이 특정 별자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숫선돌로 보이는 것에는 큰 흠들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새겨져 있다. 암선돌에도 큰 흠들이 파여 있으나 의미가 분명치 않다.”⁴⁵⁾

그런데 이 누워 있는 선돌을 자세히 보면 가장 왼쪽에는 비록 작은 성혈로 새겨져 있으나 6개의 뚜렷한 국자 모양이 남두육성을 나타내는 것 같고(세워졌을 경우 제일 위쪽의 6개 별이 남두육성이다), 이 남두육성과 북두칠성 사이에 놓인 큰 성혈 2개는 해와 달로 보이는데, 해의 성혈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선돌의 경우 사속도의 위치가 천문학적 정확도에 따라 그 크기와 방위가 설정된 것이라기보다는—선돌이 누워 있어 원래의 상태가 사라져 그 정확한 방위를 알 수 없고, 또 작은 선돌이기에 정확한 방위설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의미적으로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이 선돌에도 이미 선사시대의 천문사상에서 해와 달, 남두육성과 북두칠성의 사속도 구도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선사시대에 사속도의 천문시스템으로 온 코스모스를 수호와 보살핌으로 파악했다는 것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이 북두칠성 자루 옆에 새겨져 있는

42) 박창범 교수는 그의 『천문학』(27쪽)에서 이 고인돌의 동심원을 8개로 보고 있으나, 고인돌사랑회의 인터넷 사이트, 함안박물관에 그려진 이 고인돌에 대한 모형도, 나일 성 박사의 『한국천문학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63-65쪽)와, 국민대학교 박물관에서 발행한 『한국의 선사시대 암각화』(국민대학교 박물관, 1993, 10쪽)에서는 동심원을 7개로 보고 있으며, 또 필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7개의 동심원 문양으로 보인다.

43) 박창범, 앞의 책, 27쪽.

44) 필자는 이 고인돌 동심원의 별자리들이 음양오행성(해와 달을 비롯한 5행성)으로 보고자 한다. 우선 고인돌의 중간 오른쪽 부분의 가장 큰 동심원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기에(하나라면 단연 태양으로 추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과 더불어 달로 보인다. 선사시대에는 육안에 의한 관찰이었기에, 하늘에 가장 크게 보이는 2개의 별은 태양과 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머지 5개의 동심원은 거의 비슷한 크기이고, 선사시대부터 강력하게 부각되어온 오행성으로 여겨지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꼭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45) 박창범, 앞의 책, 29쪽.



그림1-강원도 양구군 용하리 선돌



그림2-최근에 직립으로 세워진 용하리 선돌

성혈을 보성이라고 할 때, 이 선돌에 새겨진 나머지 5개의 성혈은 오행성으로 추정된다. 오행성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도 자주 등장할 뿐 아니라, 성혈고인돌의 천문도에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넷째로 제시된 증거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충북 청원군 가호리 아득이 마을의 이른바 ‘아득이 고인돌’이다. 이 고인돌 아래에서 길이가 32cm인 돌판이 출토되었는데, 이 돌판에 파여진 65개의 작은 홈은 과학전문가들에 의해 별자리로 확인된 것이다. “이 돌판 위에는 65개의 작은 홈이 있는데 이 홈들이 아무 위치에나 무작위로 새겨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돌판 홈들의 분포는 면밀히 분석되었는데 이 홈들이 북극

근처의 별자리들을 반전시켜 표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⁴⁶⁾ 이 돌판에서 확인된 별자리는 북두칠성을 비롯해 작은곰자리와 용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 등이다.⁴⁷⁾

그런데 이 ‘아득이 고인돌’의 돌판이 천문도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박창범 교수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표면이 매끈한 돌판에 새긴 60여 개의 구멍 분포가 단순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제작한 흔적이 역력하고, 둘째, 돌판은 발굴 전까지 2,500년 동안 무덤 속에 부장품으로 묻혀 있었기에 사람의 손때를 타지 않아 후대의 가필이 없으며, 셋째, 북극성 주변의 별들을 묘사한 그림이 고구려 고분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⁴⁸⁾

더더욱 놀라운 것은 ‘아득이 고인돌’의 돌판에 새겨진 별들의 분포 형태가 서기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지는 평양의 진파리 4호분 고분벽화 천문도와 유사하고, 또 북한에서 기원전 15세기경으로 추정하는 함경남도 함주군 지식리 고인돌의 뚜껑돌에 새겨진 천문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고인돌들에 새겨진 천문도가 서로 연계된 것이라면, 이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별자리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천문사상이 전승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성혈고인돌 외에도 필자는 경북 안동의 와룡산 고인돌, 경북 문경의 하리고인돌,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매키리의 매키리고인돌 등에서 시속도의 고인돌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세계에 흩어진 전체 고인돌의 2/3 이상이 한반도와 옛 고조선의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또 이들 고인돌과 선돌에 성혈로 새겨진 석각천문도가 발견되는 것을 통해 선사시대의 거석문화가 고조선에서 크게 번창했다는 사실을 추리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이종호 박사가 지적하듯이—거석문화 시대에 천문도를

46) 박창범, 앞의 책, 29쪽.

47) 박창범, 앞의 책; 이종호, 『한국 7대 불가사의』(역사의 아침, 2007), 25쪽 참조. 이종호 박사가 ‘아득이 고인돌’의 돌판을 세워놓은 상태로 찍은 사진에는 북두칠성과 남두육성 및 해와 달을 추정케 하는 별자리가 보인다. 맨 아래의 오른쪽에는 7개의 별무리가 북두칠성을, 맨 위의 왼쪽에는 6개의 별무리가 남두육성을, 또한 이 남두육성 바로 아래에 새겨진 2개의 큰 성혈은 해와 달로도 추정할 수 있다.

48) 여기서는 이종호, 위의 책, 26쪽 참조.

49) 위의 책, 26쪽 참조. 함경남도 함주군 지식리의 고인돌 천문도에 관해서는 위의 책, 22쪽 참조.

만들고 하늘과 자연현상을 정기적으로 관찰한 것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보다 훨씬 앞선다는 점이다. “대동강 유역의 고인돌에서 발견된 천문도는 기원전 3000년경의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토지 경계비로 기원전 1200년경에 만든 천문도보다 무려 1,800년이나 앞서는 것이다. 고인돌 별자리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세계 문명 발상지에 견주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앞선 문명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이다. 이는 한국의 고인돌과 고인돌 별자리야말로 세계의 불가사의와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유산임을 의미한다.”⁵⁰⁾

이때까지의 자료들, 즉 성혈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들이 선사시대의 천문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고시대에 한반도에 살았던 고대인들이 별들에 관하여 남긴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낙랑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기원전 1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2점의 토기에 남아 있는 달을 상징한 그림과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는 2개의 석판을 들 수 있다”⁵¹⁾는 주장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자가 발견되기 이전에 문양과 성혈(星穴)⁵²⁾ 등의 상징어와 표현인문학으로 새겨진 고인돌과 선바위, 선돌의 경우는 검증이 불가능하고 실증이 어려우나?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거기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박창범 교수도 지적하듯 “암각화나 고인돌·선돌 등에 새겨져 있는 문양과 흠들은 선사시대인의 직접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선사시대의 진술서이다. [...] 흠이 새겨져 있는 남한 각지의 고인돌에서 이러한 문양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⁵³⁾

50) 위의 책, 17쪽.

51) 나일성, 『한국천문학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67-68쪽(이 유물들에 대한 사진자료는 68쪽 참조). 나일성 박사에 의하면 “이 유물들을 처음 기술한 루퍼스(W. C. Rufus)는 1910년대에 평양박물관 관장이었던 고이즈미(Mr. Koizumi)로부터 한국 천문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나일성, 위의 책, 68쪽)는 것이다. 물론 기원전 1세기경의 낙랑의 유물은 기원전 30세기경의 성혈고인돌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지만, 고귀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나일성 박사가 루퍼스의 “Korean Astronomy”(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Vol. 26, 1936, pp. 3-4)에 게재한 자료, 즉 낙랑시대의 석판을 모사한 사진에는 북두칠성과 28수의 등의 전통적인 천문도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나일성, 위의 책, 69쪽 참조).

52) 고인돌의 덮개돌에 새겨진 흠이 천문도로 밝혀진 이상, 필자는 성혈을 사전적 의미인 性穴로 보지 않고 星穴로 읽는다. 그러기에 필자의 글에 등장하는 모든 ‘성혈’은 星穴임을 밝힌다.

53) 박창범, 앞의 책, 23-24쪽.

만약 성혈이나 석각천문도 및 문양이 어떤 확실한 의미를 밝히고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말하는 돌'이 되는 것이다. 더더욱 성혈고인들과 석각천문도가 새겨진 성혈고인들은 일종의 선사시대의 언어로서 천문, 경천, 보살핌과 수호사상 및 천향사상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말하는 돌'인 것이다. 성혈고인들의 사숙도는 코스모스를 보살핌의 체계로 보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철학인 것이다. 절대로 인류는 미개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철학(philosophia: Philia+sophia: φιλία+σοφία)' 개념, 즉 "지혜에 대한 사랑"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온 코스모스를 보살핌과 수호함의 체계로 보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된다.

VI. 맺음말

'돌의 세계'나 '말하는 돌'과 같은 개념은 과학기술문명과 실증주의를 숭배하고 형이하학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꼭 낯설기만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돌은 그야말로 '무생물'로 취급받는 데다 돌 스스로 절대적인 침묵을 견지하고 있기에, 그 존재의 의미를 찾거나 부여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양문화와 사상에 심취한 롬바흐(H. Rombach)는 '돌의 세계'를 발견하고 '말하는 돌'의 의미를 명쾌하게 밝혀 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돌(거석)로부터 '절대자와 '초-자연'으로서의 시원적 형이상학 개념을 읽어낸다. 그런데 '말하는 돌'은 고인들의 덮개돌에 새겨진 성좌가 더더욱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고인들의 천문도는 단순히 하늘의 별을 나타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월남북두(日月南北斗)와 같은 사숙도를 통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선사인(先史人)들을 원시적이거나 미개했다고 해서 안 되며, 진화가 덜 되었다고 해서도 안 된다. 더더욱 그들은 먹거리만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문화와 철학을 펼쳤음을 '말하는 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국민대학교 박물관, 『한국의 선사시대 암각화』. 국민대학교 박물관, 1993.
-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 관념 체계 연구」. 『진단학보』 제82호, 1996.
- _____, 「벽화천문도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정체성」. 『고구려 정체성』, 학연문화사, 2004.
- _____,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2008.
- 나일성,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리차드 팔머 지음, 이한우 옮김,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2001.
- 박창범, 『천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스콧 펙 지음, 김훈 옮김, 『거석을 찾아서 내 영혼을 찾아서』. 고려원미디어, 1996.
- H. 롬바흐 지음, 전동진 옮김, 『살아있는 구조』. 서광사, 2004.
- 이광표, 「우리 조상들은 왜 돌을 벗으로 생각했을까?」. 《동아일보》 2016년 1월 20일자.
- 이종호, 『한국 7대 불가사의』. 역사의 아침, 2007.
- 전동진, 「롬바흐의 그림철학」. 『하이데거 연구』 제7집, 2002.
- Heidegger, M., *Die Grundbegriffe der Metaphysik*. Klostermann: Frankfurt a.M., 1983.
- _____, *Sein und Zeit*. Max Niemeyer: Tübingen, 1984.
- Rombach, H., *Leben des Geistes*. Herder: Freiburg · Basel · Wien, 1977.
- Schmidt, G., *Platon* (unveröffentlichtes Manuskript). Vorlesung im Winter Semester, 1989 · 1990.

국 문 요 약

돌은 현대인에게서 ‘무생물’의 카테고리로 여겨지기에, 그 존재 의미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오늘날 과학기술문명과 실증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돌을 살아 있는 존재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돌은 먼 선사시대부터 우리에게 친근한 문화의 동반자로 여겨져왔다. 동양문화에 심취한 롬바흐(H. Rombach)는 ‘돌의 세계’를 발견하고 ‘말하는 돌’의 의미를 명쾌하게 밝혀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돌로부터 ‘절대자’와 ‘초-자연’으로서의 시원적 형이상학 개념을 읽어낸다. 그런데 ‘말하는 돌’은 고인돌의 덮개돌에 새겨진 성좌가 더더욱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고인돌의 천문도는 단순히 하늘의 별을 나타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월남북두(日月南北斗)와 같은 사숙도(四宿圖)를 통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선사인(先史人)들은 자신들이 고도의 정신문화와 철학을 펼쳤음을 ‘말하는 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투고일 2016. 3. 20.

심사일 2016. 4. 25.

게재 확정일 2016. 6. 8.

주제어(keyword) 돌(stones), 돌의 세계(the world of stones), 고인돌(dolmen), 사숙도(four-constellations-systems), 천문도(the maps of constellations),

Ancient Sculpted Megalith, Its World and Constellations Engraved on the Dolmen

Yun, Byeong-yeol

Since stones are regarded as a category of inanimate nature by modern people, it is not easy to find meanings of their existences. Especially due to the modern prevail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ivilization and positivism stones are regarded as non-living beings. However, they have been regarded as familiar cultural partners for us from the prehistoric age. H. Rombach, a devoted admirer of Eastern culture has discovered the world of stones and has clarified the meaning of ancient sculpted megalith. Furthermore, from stones[or megalith] he has derived the primal metaphysical concepts as "Absolute" and "Supernatural". Especially, constellations which were engraved on the capstones of dolmen among "ancient sculpted megaliths" express more clearly abovementioned concepts. "The maps of constellations"(天文圖, 천문도) engraved on dolmens represent not only the stars of the heaven, but give us absolutely meaningful messages through their "four-constellations-systems"(the Sun, the Moon, the Big Dipper and the Sagittarius). "Ancient sculpted megaliths" have shown us that prehistoric men owned a high standard of spiritual culture and philosophy.